

8 기획

▶ 1면에서 이어짐

선거 무산 원인으로서는 투표율 미달, 후보자 불출마 등 다양한 요소가 존재한다. 이처럼 대학 사회에서 학생회 구성에 실패하는 사례가 늘어나며 학생들이 학생회의 필요성과 존재 이유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낮은 학생 관심도 원인은?

이처럼 총학을 향한 관심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 사회학과 김종백(사회학) 교수는 시대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한다. 독재 정권에 대한 항거, 민주화 달성이라는 공통적인 목표가 있던 과거와 달리 사회가 개인화되고 다변화되며 변화한 당연한 결과라는 것이다.

김 교수는 “과거 이념의 시대엔 SNS나 소셜 미디어가 없어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구심점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총학이 이 역할을 대신했다”며 “하지만 시대가 변하며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다양해졌고 학생 개개인의 외부 활동이 활발해지며 총학이 왜 존재하며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해줄 수 있는지 관심이 줄어든 건 당연하다”고 말했다.

정치외교학과 임성호(정치학) 교수는 원인을 시대 흐름에 따른 공통 이슈 소멸, 학생의 개인화, 정보화 시대에 따른 정보 접근성 향상, 대학 교육 보편화로 분석했다. 민주화 투쟁의 시대가 흘러가며 독재 타도와 같이 학생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공통 이슈가 사라졌다는 설명이다.

임 교수는 “대중사회에서 탈대중 사회로 시대가 바뀌며 학생 개인화, 원자화가 심해져 총학 선거와 같은 공동의 일을 향한 관심이 약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정보화 시대가 도래하며 학생 각자가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 돼 총학이라는 매개 조직에 의존할 필요성이 없어졌으며 대학 교육이 보편화되며 대학생이 사회를 위한 소명 의식을 갖고 총학의 이슈에 신경 쓰는 정도가 줄어들었다”고 현재 상황을 진단했다.

실제로 이서연(미디어학 2021) 씨는 지난 총학 선거에 투표하지 않았다. 이 씨는 “개인 활동으로 인해 총학 선거와 같은 학생 자치에 신경 쓸 에너지가 거의 없는 것 같다”며 “나에게 이득이 될 만한 확실하고 눈에 띄는 공약이 없는

이상 투표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청한 경영대 소속 학생 A 씨 또한 지난 총학 선거에 투표하지 않았다. A 씨는 “총학이 누가 되든 내 삶에는 큰 영향을 줄 것 같지 않고 무엇보다 학교를 향한 관심도 크게 없어 투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 2022학년도 서울캠 총학 봉건우(자율전공학 2017) 회장도 같은 의견을 전했다. 봉 전 회장은 “80년도 학생운동이 활발했던 시기와 비교해 현재 사회는 다각화되고 세분화돼 한 군데로 힘을 모으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당시 수업과 동아리 같은 대부분의 활동이 비대면으로 이어지며 전반적인 대학 사회 분위기가 크게 바뀌었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 7기 김서원(동덕여대 체육학 2020) 의장은 학생이 총학에 무관심해진 가장 큰 원인으로 코로나19를 꼽았다. 김 의장은 “코로나 당시 강해진 개인주의적 성향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대학이 많아 투표율이 나오지 않는 등 총학 구성에 실패한 대학이 많아진 것 같다”는 생각을 전했다.

과거에 비해 총학 역할이 줄어든 데는 이견이 없는 모습이었다. 김종백 교수는 “과거에 비해 총학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이 줄어든 건 사실”이라며 “이에 따라 총학을 향한 기대 자체가 적어진 것은 분명하고 총학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지 않으면 스스로 존재 가치를 확인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경영대학 송원섭(경영학 2018) 전 학생회장 또한 “외부 상권과의 제휴나 협찬, 축제 운영 등 최근 학생사회에서의 역할이 이런 곳에 집중되며 학생 자치의 역할이 많이 축소된 부분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축제를 위한 총학’이라는 비판 총학의 본질적 역할은

이러한 흐름에서 총학이 축제만을 위해 존재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얼마나 유명한 연예인을 섭외하는지가 당대 총학의 능력을 평가하는 가장 큰 요소로 작용하며 관심을 끌기 위해 유명 연예인을 섭외하는 데만 열중한다는 비판이다. 임성호 교수는 “총학이 유명 연예인을 섭외하기 위해 들이는 비용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며 “지식 함양의 장(場)인 대학 캠퍼스가 유명 연예인의 오락 무대로 쓰인다면 자존심 상하



총학생회에 대한 학생의 관심이 줄어든 데는 탈대중 사회로의 변화, 정보화 시대의 도래 등 시대 변화에 따른 어쩔 수 없는 흐름이라는 분석이 있다. (사진=대학주보 DB)

는 일”이라는 생각을 전했다.

2023학년도 서울캠 총학 이재백(관광학 2020) 전 회장은 “축제에 유명 연예인을 섭외하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이는 것에는 비판적인 시각”이라며 “학교 구성원이 하나 되는 행사를 만드는 게 목적인지 좋은 연예인을 섭외하는 게 목적인지 헷갈려 어떻게든 목적성을 찾으려 노력했었다”고 말했다. 경영대학 송원섭 전 학생회장 또한 축제가 학생 자치에 있어 가장 중요한 행사임을 인정하면서도 축제에만 집중하는 총학의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송 전 회장은 “축제뿐만 아니라 총장 선출이나 광역 모집과 같은 정치적 의제에 대해 너무 집착하지도, 그렇다고 기능을 상실하지도 않는 중용의 태도를 잘 유지

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총학은 학생 역할을 대변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전대넷 김 의장은 “학생자치에서 축제가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축제를 위한 총학이 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총학의 본질적 역할은 학생의 역할을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과 같이 다양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행동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축제에 유명 연예인을 섭외하는 것에 이점이 있다는 시각도 있다. 봉 전 총학 회장은 축제가 대학을 브랜드 가치화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봉 전 회장은 “현재는 대학 간의 경쟁이 중요

하며 아카라카(연세대 축제)나 임실렌티(고려대 축제)가 대학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상황에서 어떤 연예인이 오느냐는 중요한 요소”라며 “실제로 요즘엔 중고등학생들이 입시 지표나 연구 실적보다는 SNS에 뜨는 축제 공연을 보고 어느 대학에 가고 싶은지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이처럼 총학 활동을 향한 학생 관심도가 낮아지고 학생회 구성 비율이 줄어든 데는 여러 시대적, 사회적 요인이 복잡하게 작용된 결과다. 하지만 대학은 지식을 창출하고 확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진정한 학생 자치를 위해, 본질적인 대학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학생회가 나아갈 방향은 무엇일까.